

미래 직업으로서의 농업

경제적 의미의 산업 아닌 문명적 의미로 존재하는 산업
비교적 오토메이션화 영향 적은 農業, 가치 커 질것

농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래의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농업 문제를 십수년이나 연구하고 교육해온 연구자로서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농업관료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혹시 대학교수에게 묻는다면 뭔가 속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물어오지만 교수인 나로서도 한계를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20여년 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난다. C.V. 로크라는 사람이 지은 「미래의 직업」이란 책이다. 그는 세계적인 시각에서 미래사회를 관망하면서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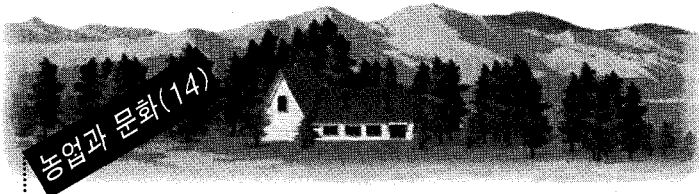


장재우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자신있게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농업은 직업으로서 더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책에 담긴 로크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서 현재의 농업을 한번 재음미해 보자.

농업의 가치가 중시되는 미래 사회

「미래의 직업」에서 저자는 먼저 지구의 장래는 오토메이션(Automation)화가 이루어져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사회의 변화를 오토메이션이라는 말로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오토메이션화가 장래에는 컴퓨터를 동반하면서 그 방향이 더욱 뚜렷해져 모든 분야에 걸



쳐 철저한 오토메이션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가정 내부에까지도 오토메이션화가 침투하여 주부대신에 로봇이 요리를 하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메이션화에 의해 인간의 일할 부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지금까지의 취업구조도 크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토메이션화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농업이 가장 중요한 직업이 될 것이고 농업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로크의 말을 직접 빌리면 2000년까지 지구 인구가 64억이 되는데 이들의 식량을 조달하는 것은 미래의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농업이며 그 시대에 절대적으로 위협에 강한 직업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식량부문에 일하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로크는 오토메이션화와 인구증가를 전망하면서 앞으로의 직업은 식량산업이 가장 유력할 것이라는 견해를 펴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로크의 전망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나름대로 로크의 이론을 보완하여 농업의 미래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오토메이션 시대의 실업 흡수하는 농업

오토메이션 시대의 실업은 다음과 같은 두 경로를 거쳐 발생하게 된다. 하나는 오토메이션 시대가 되면 단순히 대학을 나왔다던가 학업성적이 우수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도화를 추구하게 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판단력이나 관찰력, 지구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기력을 잃게 된다. 이쯤 되면 인간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직장을 잃어 가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실업자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토메이션화에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오토메이션화 그 자체가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이 증가한다는 논리다. 경제의 발달은 모든 자원과 노동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특히 신기술의 도입에 의해 유발되는 기술혁신은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기술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절약적(勞動節約的)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력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고 그간 노동현장에 고용되었던 사람들도 실업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모두 사회적 또는 구조적 실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재취업(再就業)하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 산업 가운데 농업은 경기변동이나 오토메이션화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 그래서 오토메이션화가 되더라도 농업은 사회적 실업자들을 받아 들일 수 있

는 공간을 갖는다. 실제로 IMF때 농촌은 많은 도시 실업자들을 무한정으로 받아들였다. 이와같이 농업은 경제논리를 떠나서 실업자들을 수용하는 데 탄력적이다. 다시말하면 농업이 경제적 의미로서의 산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논리를 뛰어넘는 실업구제의 차원, 즉 문명적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다.

농업, 경제적 가치 아닌 문명적 가치로 파악해야

나는 오래 전부터 농업을 경제적(經濟的)으로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해온 사람이다. 농업은 비경제적 가치, 예를들면 농촌의 아름다운 풍습이나 환경적 경관과 같은 문화적(文化的)의미를 많이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의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렇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다. 그래도 농민들은 농업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이런 것만 보아도 농업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문화적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로크의 주장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오토메이션화에 따른 실업자

이외에도 이 세상에는 기술혁신이라든가 사회진보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출세욕이 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사람들을 농업이 흡수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경제적 체제가 아닌 초문명적·초문화적 체제를 농업이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농업의 측면에서 보아도 결코 나쁘지 않은 앎을 것이다.

예를들어 로크가 이야기하는 실업자들은 오토메이션 사회에서는 무력했지만 개중에는 수입과 지출, 비용 등 경리부문에 밝은 경제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다. 오토메이션 사회에서 탈락한 이들을 농업부문에서 흡수한다면 농업경영은 한층 강화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국 이들이 새로운 농업 세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농업은 이와같은 초문명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농업은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진보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직업임과 동시에 경제체제와는 별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수행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이다. 그러나 농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농약정보**

